

< 동정자료 >

엠 바고: 2월10일(월) 14:00 이후 보도가능합니다.

김현미 장관, “신종 코로나 타격 항공업계 전방위 지원”

- 10일 항공사·공항공사 CEO 만나 업계 피해현황 청취 및 방역체계 재점검

- 운수권·슬롯 회수유예 즉각시행, 대체노선 부정기편 운항지원 등 공항시설사용료 납부유예·감면 등 적극 검토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월)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10개 항공사와 인천·한국공항공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공항·항공기 방역체계를 다시한번 점검하는 한편, 운항감축 및 이용객 감소로 인한 항공업계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김 장관은 “최근 미국 ABC 기자(2.7)가 ABC뉴스 트위터를 통해 인천공항의 방역체계와 철저한 소독현장을 높이 평가”한 사례를 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유입 최소화와 이용객 보호를 위해 공항과 항공기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항공사, 공항공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 또한 중국 우한지역 거주 우리 교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위협을 무릅쓰고 전세기 운항에 협조해 준 대한항공과 공항에서의 빈틈없는 제반준비를 해준 공항공사 종사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 김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항공수요 및 업계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항공분야는 1.23일 중국 우한지역 봉쇄 이후 한-중 노선 운항편수가 2월 2째주 약 70% 감소*하였고, 최근 국민들의 여행심리 위축 등으로

동남아 등 다른 노선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 (국적사 8社) 1월초 59개 노선, 주546회 → 2월1주 주380회(주166회 ↓, △30%) → 2월2주 주162회(주384회 ↓, △70%)

○ 또한 김 장관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 항공여객 감소 추이가 과거 '03년 사스, '15년 메르스 당시 보다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03년 사스 당시에 비해 국제항공 여객 규모는 4배 이상 성장, 항공사도 2개에서 10개로 늘어난 상황을 감안한다면 항공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클 것으로 전망”했다.

□ 아울러 김 장관은 작년에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보잉 737 기체결함 등에 이어 급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까지 연이은 악재를 맞고 있는 항공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 먼저 지난 2.5일부로 중국노선 운항감축에 따른 항공사 부담완화를 위해 한-중 운수권과 슬롯 미사용분 회수유예 조치를 즉각 시행했고, 이후 대체노선 개설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수요탄력적인 부정기편 운항 등 신속한 행정지원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항공업계 파급영향 등 피해정도에 따라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유예·감면 등 단계별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간담회시 나온 업계 애로사항과 건의과제들 중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들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 마지막으로 항공사·공항공사 CEO들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긴밀히 대응하고, 정부와 항공업계가 협심하여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당부하였다.

2020. 2. 10.

국토교통부 대변인